

금호타이어, 밤샘협상 끝 합의...

일시금 250만원에 월급 50% 지급키로 ... 9월27일 찬반투표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거듭하던 금호타이어가 밤샘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끌어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9월24일 오후부터 제23차 대표교섭에 들어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9월25일 오전 3시께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양측은 미래 비전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생산장려금으로 일시금 250만원과 월 급여의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회사측이 기존에 제시한 5월 상여금의 150%를 일시금으로 주는 것보다 소폭 진전한 것이며, 노조는 그동안 거부해 오던 노사합의에 동의해 한발씩 양보한 것이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9월27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파업과 직장폐쇄 경고로 거듭해 오던 갈등을 접고 워크아웃 졸업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5>